

自我同一性에 대한 論評(2)

李 明 賢

I. 概 括

申教授의 論文은 두가지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크게 끈다. 첫째는「自我同一性」의 문제가 지닌 哲學的 涵축성을 명료하게 잘 밝혔다는 점이고, 둘째는 論題를 어떤 한 갈래의 철학적 경향에 제한하여 논의하지 않고, 廣範圍하게 여러가지 立場들을 論究하면서 自身이 채택하고자 하는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論究는 그의 學問的 洞察力의 깊이와 哲學的 視野의 幅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評者는 申教授의 論議를 보다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몇가지의 적은 질문들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申教授가 옹호하고자 하는 立場의 타당성에 관한 나의 의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몇가지의 적은 質問들

① 申教授의 주제는 自我同一性의 문제인가? 自我存在의 構成의 문제인가?

自我同一性의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성과 연속성을 공유하는 자아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임을 申教授는 지적하면서 자신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自我存在의 構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물음의 중요성은 申教授가 主題와 다른 내용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 보다는 그가 소위 실증주의 철학자들이라고 부른 一聯의 철학자들이 다룬 自我同一性에 관한 논의가 「환상에서 탈피하지 못한」, 「또 하나의 기적으로 생

각]되는 논의들이라는 그의 실랄한 표현들의 무게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申教授의 그러한 비판적 표현은 論點變更의 土台위에서 가능하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을 남게하기 때문이다.

② 申教授가 말하는 소위 自我同一性의 문제에 대한 실증주의적 무엇을 혹은 누구를 말함이며, 그 접근방법은 三人稱 立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올바른가?

自我同一性의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記憶의 基準의 補完으로서 身體의 基準을 내세우는 立場을 三人稱의 立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③ 申教授는 「自我同一性을 構成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이나 주체성의 개념과 밀착되어 있는 자유, 인격, 행위, 건전성, 성실성의 개념들과 그 부정적인 자아상실, 자기소외, 정신분열, 변태의식등의 개념들을 구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 그 기준의 제시가 과연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분명치 않다.

④ 申教授는 Cogito, ergo sum 의 데카르트의 명제는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여기서 존재란 自我存在가 아니겠는가?

申教授는 自我=思惟하는 實體라는 데카르트의 等式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는 Ryle 을 「맹목적이고 表皮的인 반응을 보인다」고 꾸짖고 있는데, 申教授의 그런 힐책의 근거는 무엇인가?

⑤ 申教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로크가 <인간>과 <인격>을 구별한 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로크 자신이 이러한 구별의 恣意性을 인정하고 모종의 約定的 定義(stipulative definition)로 <인격>개념을 구성한 것을 그것이 그대로 <인간>개념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모든 비판이 바로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방점은 評者가 부친 것임).

과연 自我同一性에 관한 로크의 견해에 대한 모든 비판이 그런 것일까?

⑥ 申教授는 로크의 自我論이 癖式 현상론의 경우처럼 一聯의 정신작용으로 환원시키지 않은채로 제 3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는데 로크의 탁월한 창의성이 발견된다. 로크는 이 제 3의 존재방식을 자기의식으로 파악하고

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의식도 정신작용의 하나가 아닐까?

Ⅲ. 第3의 파라다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

申教授는 自我同一性에 대한 로크의 견해를 申教授가 제삼의 파라다임으로써 제시하며 옹호하는 듯 보이는 현상론적 자아론의 선구적 이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申教授에 의하면 로크의 견해의 탁월성은 人間存在의 특이성을 自己意識으로 파악한데 있다. 그런데 기억작용으로 해석하는 短見을 펴왔다고 申教授는 지적한다. 그런데 로크에 대한 모든 비평가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자기의식을 단순한 기억작용으로 해석하는 短見을 펴왔다고 申教授는 지적한다. 그런데 이러한 로크의 견해는 위로는 인간의 自我我在를 思惟와 同一視한 데카르트적 전통에 이어지며, 아래로는 인간존재를 現存在(Dasein)으로 규정하는 Heidegger, 이러한 Heidegger의 입장을 계승하는 Sartre의 對自存在어로 이어지고 있다고 申教授는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Heidegger와 Sartre의 인간론은 현상론적 자아론이라 命名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여타의 自我構成에 관한 이론보다 탁월한 것임을 申教授가 主張하는 것 같이 보인다.

앞에서는 이미 의문을 제기한 바 있지만, 申教授가 제시한 5가지의 파라다임이 自我同一性에 관한 5가지의 다른 입장으로 제시된 것인지 혹은 自我論에 대한 5가지 다른 입장으로 제시된 것인지, 아니면 두가지 다른 주제에 대한 이런 견해 저런 견해로서 제시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논의된 내용을 따라 말하면 파라다임 1로 제시된 데카르트의 實體論과 파라다임 5로 제시된 唯識, 法相宗의 현상학적 實踐論은 自我同一性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제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파라다임 3으로 제시된 흄의 現象論도 自我同一性에 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는 제시되지 않은채 하나의 否定論으로 제시되었다. 흄은 자아동일성을 상상력에 의해 날조된 허구로 파악되었다고 申教授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면 自我同一性에 관한 적극적 논의의 행태는 파라다임 1과 파라다임 4, 즉 로크와 하이데거 및 사르트르의 견해로 압축된다. 申教授는 현대의 영미철학계에서 논의되는 自我 혹은 人格의 同一性(Personal identity)

에 관한 心理哲學(Philosophy of Mind)의 논의들의 무언가 焦點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告發을 여러가지 과학한 표현을 사용하여 용감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공격의 핵심은 人格同一性(Personal identity)에 관한 로크의 견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두고 있다. 申教授에 의하면 로크는 인간(man)과 人格(Person)을 구별하고 전자의 同一性은 身體的 同一性, 後者の 경우는 자기자신을 자기자신으로 간주하는 자기의식에 있다.

그런데 申教授에 의하면 현대의 영미의 철학자들의 로크에 대한 모든 해석은 人格의 동일성에 관한 로크의 견해를 기억속에서만 찾으려는 데 있다고 본다. 人格의 同一性の 근거를 확보해 주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자기의식에 있다고 申教授는 主張한다. 이 자기의식이 自我를 構成한다. 이러한 自己意識을 인간존재의 特性으로 부각시킨 점에서 로크는 <자신의 존재자체를 문제로 하고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인간존재를 탐구하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현상학적 탐구와 만난다고 申教授는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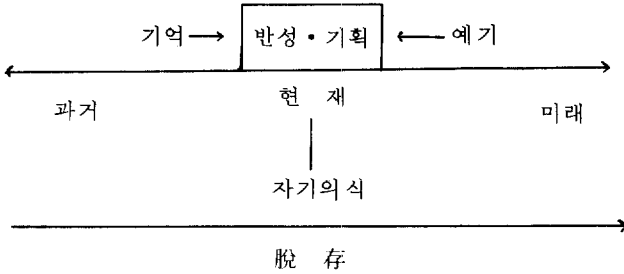
그리고 申教授는 현상학적 自我論이 自我同一論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하이데거의 自我는 脫自的 地平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 현상론적 파라다임도 自我同一性에 관한 논의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評者가 제기하려는 의문은 단순한 自我가 아니라, 自我 혹은 人格의 同一性を 문제삼을 때, 그것이 여하한 형태의 接近方法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을 도외시하고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다. 로크의 경우도 물론이려니와 脫自的 地平에 초점을 맞추려는 하이데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어떠한 과거의 사고나 행동에 소급하여 연장될 수 있는 만큼 그 人格의 동일성이 연장된다」고 말한 로크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로크의 人格의 同一性の 파악도 과거와 연결을 맺고 있는 현재 나의 자기의식이라는 時間地平이 문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申教授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實存은 존재자인 과거를 超脫하여 存在可能性인 未來를 향하여 현재의 존재를 투기하는 시간적인 地平構造를 가지며, 이러한 실존행위중에 자기동일성(die Ständigkeit des Selbst)을 확보하려는 志向性이 다름아닌 存在에의 關心이다」라는 대목에서 人格의 同一性과 時間의 地平을 동시에 문

제삼고 있다.

그렇다면 時間의 地平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도식화 할 수 있다.



이 도표에서 뚜렷해지는 것은 기억이 관여하지 않는 과거란 년센스이며, 예기가 관여하지 않는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하이데거가 인간존재의 특성으로 지적하는 脫存의 구조가 바로 時間 地平속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申教授 그토록 못마땅해 하는 기억에 초점을 두는 철학자들의 논의가 한갓된 焦點을 잃은 미련한 짓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을까?

물론 로크의 경우 의식을 오직 기억 그것뿐 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인간의 의식은 적어도 자기의식(self-awareness)과 기억, 두가지를 다 문제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만일 申教授가 기억을 도외시키고 자기의식을 문제삼고 인간의 自我同一性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다는 논지를 펴려는 것이라면 본논문에 제시된 논의 이외에 다른 論證을 펴야만 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기억을 첨가하여 문제삼으려할 때도, 이미 많은 현대 영미 철학자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신체적 기준을 도외시킬 수 없는 難點도 또한 우리는 그리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의식의 측면에서만 떼서 그 본성을 탐구하려는 데카르트적 전통이 지닌 근본적 딜레마와 마주치게 된다.

현상학적 전통에서 자라난 메르로 뽕띠의 신체에 관한 논의와 영미와 철학적 전통에서 자라난 P. F. 스트로슨의 Person에 관한 논의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개의 실체를 출발점으로 삼은 근세적 二元論의 존재론을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우리가 주목할만 하다.

나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도 이런 점에서 二元論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